

“경전이라는 거울에 禪의 모습 비춰보자”

경전과 禪

경전들에 살해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한데 묶어 '교(敎)'라 하여, 이를 선종의 '선(禪)'에 대비시키는 사고방식이 있어 왔다. 선종의 '불립문자·교외별전'의 가치를 내세워, 아무리 부처님에 의해 설해졌다 해도 본분 자체인 언어를 쓰신 바에는 상대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교'인 것과는 달리, 자기네야말로 부처님의 깨달음(마음) 바로 그것을 고스란히 이어 받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고 나온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열화시종의 장면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시자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는 중에 홀로 가섭만이 빙그레 웃는다. 바로 이 순간 이심전심으로 부처님의 도(道)의 진수는 가섭에게 전수되었다 함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조사들에 의해 계승되어 온 그것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 선종인 점에서 선종이야말로 불교의 정통에 속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러한 발상에 담겨진 내용을 따져보는 데 있으므로 열화시종의 사실 여부 따위는 논외로 돌려 둔다.

그러면 이같은 견해에는 어떤 허실이 있었던가. 불교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마음임을 대 전제로 하여 마음의 본체(本體)인 불성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본래면목(원래의 모습)이라 하고, 바로 그런 깨달음으로 해서 깨달음이란 제 가 본래면목으로 돌아가는 일이고, 더 단적으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돈오(頓悟)를 표방하고 나선 데에는 공경이 간다.

《화엄경》에 보이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셋은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모든 경전에 공통되는 시각이라 해도 좋고, 본래의 자기를 되찾는 일이요 깨달음이라 함도 《법화경》 '공자유(窮子喻)'가 대표 하듯 대승 일반의 견해인 까닭이다. 그리고 돈오설 또한 생사즉멸반(生死即涅槃)·번뇌즉보리(煩惱即菩提)라는, 대승의 표방하는 원용(圓融)의 도리와 일치한다.

그러면 이것으로 만사는 끝난 것일까. 어쩌면 '교외별전'이라는 한마디로 팔만대장경에 살해된 온갖 교리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듯 싶어 출가분하게 느껴지기도 모른다. 그러나 장점은 곧 단점도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생 동안 '한 마디도 실한 바 없다(不說一字)'는 《능가경》의 말씀에 나타나 있듯 부처님께서 언어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설하신 말씀보다는 그 말씀 뒤에 깔린, 말씀하지 않은 신 부분도 중요하다는 뜻이 되었으니, 보

경전 속의 禪 사상

글쓴이



이원섭
(시인)

모든경전 깨달음 가르쳐 禪과 敎 들어난 하나

그렇다. 여러 형태의 선정이 부처님에 의해 설해졌건만 눈길 하나 주지 않았는데, 과연 이래도 좋은 것인지, 이 또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 돈오에 의해 일었다는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중국 특유의 방법으로 수행하여 많은 이들이 고차원의 경지에 도달했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 불도의 수행이 성불에 이르러야 끝나는 사실이 증명하듯 진정한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 하나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아라한이건 십지(十地)의 보살이건 스스로 족하다 여길 처지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자기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난 선사들은 불도를 성취한듯 자처해 부처님에 대해 불손한 언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렇다던 이분들을 부처님이라 보아야 하겠는가. 아니면 증상만(增上慢)에 빠진 것이라 보아야 하겠는가. 또 깨달음을 인가하는 근거도 애매하다. 오십이위(五十二位) 같은 기준점이 스승의 주관에 의존한다면 저와 닮은 선사만 길러냄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선도 일대 개혁을 감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뼈아픈 반성 위에 흠을 복돋우고 거름을 주어 새로운 생명체로 되살려야 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경전'이라는 이름의 거울 앞에 앉아, 지금까지의 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시래기 한잎도 금쪽같이 여겨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1)

상원사행

10월 1일

나는 오대산의 품에 안겨 상원사 선방을 향해 걸어나갔다. 지나간 전쟁 중 초토작전으로 회진(灰塵)되어 황량하고 처연하기 그지없는 월정사에 잠깐 발을 멈추었다. 1천3백여년 풍우에 시달린 9층석탑의 탑신에 매달린 풍경소리에 감회가 수수롭다. 탑정에 비스듬히 자리잡은 반가사유보살상이 후학남자를 반기는듯 미소를 지우질 않는다.

수북후에 세워진 건물이 눈에 띈다. 무쇠처럼 단단하여 쟁거렁거리던 선와(鮮瓦)는 어디 가고 각목기둥이 현일이며, 열두쪽 문살 문은 어디 가고 영창에 유리문이 웅얼인가. 당대의 거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에 그을린 섬들을 다시 찾아 아무런 지장사(地藏寺)의 역사를 면면히 계속하고 있는 원력스님들을 대하니 고개가 숙여지면서 선방을 향한 걸음이 가벼워진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는 30리 길이다. 개울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화진민의 독가촌(獨家村)을 지나기를 몇차례 거듭하니 해발 1천m에 위치한 상원사에 다다른다.

상원사는 지금부터 1360여년전 신라 선덕여왕때 자장율사가 초창한 사찰로 오늘날까지 선방으로서 꾸준히 이어 내

려온 선도량이다. 고금을 통해 대덕스님들의 족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중대에 자리잡은 적멸보궁 때문이다. 적멸보궁이란 부처님의 정골사리(頂骨舍利)를 모신 도량을 말하는데 이런 도량에서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 우리나라

상원사 옛도인 체취 감회 새로워

라에는 5대적멸궁이 있으니 양산 통도사, 영월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오대산 중대이다. 남자나 불교도들이 기독교의 예루살렘이나 회교의 메카처럼 평생순례를 염원하는 성지로 꼽힌다. 근세에는 이 도량에서 회대의 도인이신 방한암대선사가 상주 교화했기 때문에 강원도 특유의 감자밥을 먹으면서도 선객이라면 다투어

즐거이 앉기를 원한다. 지나간 도인들의 정다운 체취가 도량의 곳곳에서 다사롭고, 청태(靑苔) 낀 기와장과 때묻은 기둥에는 도인들의 흔적이 역연하다. 종각에는 국보로 지정된 청동제 신라대종이 매달려 있어 천수백년동안 불음을 끊임없이 천봉만화(千峯萬壑)를 굽이쳐 사바세계에 매아리로 전해주었다고 알고 있다. 종문(鐘紋)의 비천상이 불심을 계시하면서, 초겨울의 서산에 비쳐졌다.

큰방 앞에서 객이 왔음을 알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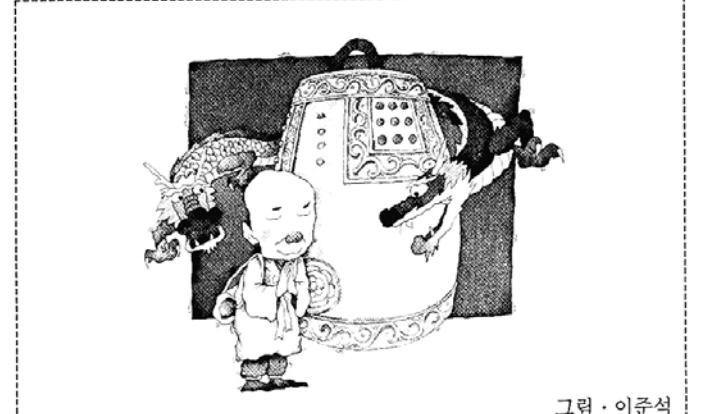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아침공양 대중은 스물 세명이다. 원주 스님과 젊은 스님 두 분이 양념 구입에 강릉으로 떠나고 나머지 스님들은 무우 배추를 뽑은 뒤 각자의 소질대로 일에 열중했다. 무우 구덩이를 파고 배추를 문기위해 골을 파는 일은 주로 소장스님들이 하고, 시래기를 가리고 엮는 일은 노장스님들이, 배추를 절이고 무우를 씻는 일은 장년 스님들이

남자는 발길을 멈추고 '흥, 도인은 무슨 도인, 시래기도 간수 못하는 주제인데 도는 어떻게 간수 하겠어. 공연히 미투리만 달게 했구려' 하면서 발길을 되돌려 걸자 '스님들, 스님들, 저 시래기 좀 붙잡아 주고 가요. 늙은이가 시래기를 놓쳐 실리를 놓아오지는 길이라고' 두 남자가 돌아보니 노장스님이 개울을 따라 시래기를 쫓아 내려오고 있

김장울력하며 食物 귀중함 알아

담당했다. 김장이 끝난 후 조실스님은 버린 시래기 속에서 열심히 손을 놀리고 있다. 조실스님은 최소한도로 먹을 수 있는 시래기를 다시 골라 먹고 있었다. 나도 조실스님을 도와 시래기를 뒤졌다. 조실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옛날 어느 도인이 주석하고 계시는 토굴을 찾아 두 남자가 발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토굴에서 10리쯤 떨어진 개울을 건너려고 할 때 이런 시래기 일이 하나 떠내려 오더라고. 그러자 두

더래요. 시래기를 붙잡은 두 남자의, 토굴을 향한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지요." 조실스님이 계속해서 시래기를 엮으면서 말을 이어 나갔다.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식물(食物)은 아껴야만 하겠지요. 식물로 되기까지 인간이 주어야 했던 시간과 노동을 무시해 버릴순 없잖아요. 허물며 남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식물이야 더욱 아껴야 하겠지요." 나는 침묵하면서 시래기를 뒤질 일 뿐이었다. 진리 앞에서 군말이 필요할까.

선방일기 제보 작가 이정범씨

상처난 불심 위로됐으면...

몇 달 전 불교관련 CD를 뒤적다 우연히 '선방일기'를 발견했다. 김지허(金知虛)스님이 쓰신 것으로 원고를 발표할 두 해 뒤인 1975년에 입적하셨다고 한다. 서울대 출신인 스님은 탄허스님의 상좌로 열심히 수행하는 남자였다고 한다. 이 글은 1973년 신동아가 공모한 논픽션에 당선된 것으로 당시의 선방 풍속과 지허 스님의 내면 세계, 안거에 임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파릇파릇 살아있어 뜻있는 스님들 사이에서 사자상승(師資相承)되듯 읽혀오고 있다. 실제로 밝혀지고 있는 원로 지백 큰스님께서 (신동아)에 게재된 원고를 복사해 후학들에게 나눠주셨는가 하면 금강암 정묵스님은 5년간 소책자로 만들어 약 5천여부를 인연있는 불자들에게 법보시했다고 한다.

"산사 안거수행 스님생활 생생"

그동안 안거중인 선방의 모습은 교계지는 물론 일반 매스컴에서도 이따금 다뤄왔지만 그런 피상적인 접근과는 달리 선방의 내면 풍경을 일기 형식으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 대하는 터라 약 250여 매의 원고를 읽는 동안 깊은 감동과 전율을 느꼈다. 당시 무수유를 역설하지 않아도 당시 안거중인 스님들이 얼마나 청빈했는지 또 그만큼 내적으로 풍부한 살림을 꾸렸던 것을 눈으로 보듯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9의 제방선원에서는 통언거에 임하는 스님들이 무상보리를 위해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일깨워졌다.

일부 권승들의 사욕으로 불교권 전체가 풍조화하는 처지로 전락한 이때 배를 꾸는 고행으로 최소한의 음식과 수면만으로 옹골정진에 임하는 많은 스님들을 상기에 처하게 된 것인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나마 위로 받고 싶다. '선방일기'는 25년이 지난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빛이 날 문자사리(文字舍利)라 여겨진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고 불자들이 마음이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

한국불교 선종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단청불사 천일기도 五百日 전국 禪院長·祖室·方丈큰스님 특별초청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재)선학원 중앙선원은 송만공, 만해 한용운, 백용성 큰스님께서 화주가 되어 창건되었습니다. 선학원은 3·1운동은 주도한 국운장출의 원찰이며 해방 이후에는 이홍보, 허동산, 정금오, 이철담 대선사께서 한국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셨던 조계종 전통 중단을 중흥케 한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선학원이 한국선종불교의 聖地인 自他가 아는 事實입니다.

이 時代의 佛敎 聖地인 禪學院에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의 王師로 계시던 無學大師께서 宮터로 삼은 장덕궁(지금의 비원)의 백토를 가지고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조성한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선학원부처님 외에 또 한 분의 부처님은 현재 수덕사 정혜선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는 곳으로 또한 선학원 중앙선원 동·하안거 방합록에 전국선원종 제일 먼저 실려 있던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볼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敎가 興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 禪宗佛敎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예로서 웃길 수 없습니다. 三寶님께 발원하며 24년 만의 선학원 단청불사를 계기로 한국 선종불교 중흥 도량이 될 선학원 대각불사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인 歷史의 佛事에 佛男佛女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라옵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평안과 고와 액이 소멸되어 다행다복한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 래

특별초청 임계암어 前 曹溪宗 宗正 西菴 大宗師

선종수계장인 삼림실법 삼장법사 윤성해대법사(선학원 중앙선원장)

■ 때 : 1998년 음 11월 23일(양 1월 10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 주 최 : 한국불교 선학원 중앙선원 · 화주단

■ 주 관 : 신도회 · 운영위원회 · 합창단 · 108보리심회 · 선정회 · 청년회

■ 문 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TEL. 732-3327, 720-8583, 720-8584

불기 2542년 음 11월 23일

한국불교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창

千日기도 五百日 大法會

제6회 한국불교전통선(禪)중흥영산대설법회상

前 曹溪宗 宗正 西菴 大宗師



전 조계종 중정 서암대종사

한국불교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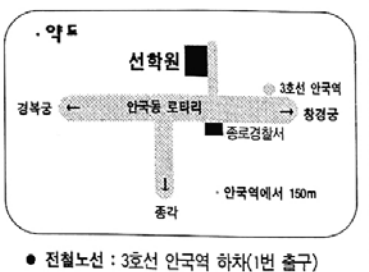
- 1차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 ③ 단청불사 (24년만의 불사) 완료
- ④ 선학원 선방 및 시민선실 내부공사 완료
- ⑤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완료
- ⑥ 일주온 전통양식 건립불사
- ⑦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五百日 전국선원장·조실·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中興靈山大設法會上 主催 제1회-제10회(매 백일간격으로)
- ⑧ 선학원 창건 사적비 세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 ⑨ 한국불교계 정화사 刊行 및 이 時代 佛敎聖地 宣布法會

화 주 단

황자현심 손진여심 오만덕화 박보리성 권지예심 이보현심 박덕순화 이광덕 이관용행 박선해일 김복덕심 윤보광심 민길상심 송경현 신옥순 김도원행 김하현 유정혜성 송범성정 정신택 정근각심 이범양자 이지해정 고만덕성 이보현심 윤영원행 및 합창단원

신 도 회

명	예	회	장	임무
고	회	장	장	임무
부	회	장	장	임무
총	회	장	장	임무
재	회	장	장	임무
감	회	장	장	임무
1	지	회	장	임무
2	지	회	장	임무
3	지	회	장	임무
4	지	회	장	임무
운	영	위	원	임
합	창	단	단	장
총	회	장	장	임무
총	회	장	장	임무
선	정	회	회	장



전철노선 : 3호선 안국역 하차(1번 출구)
버스노선 : 안국동 종로경찰서 하차 (84, 8-1, 205, 543, 2, 8, 20, 153)